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0th Anniversary
1954–201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캠퍼스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GLOBAL 외대 2014 AUTUMN Vol. 85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외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AUTUMN
Vol. 85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0th Anniversary

Special Theme

100년 외대를 향한 든든한 초석, 해외동문 네트워크 강화

04 문대동 동문 인터뷰(삼문그룹 회장,미국 댈러스동문회 고문)
06 2회 미주동문연합회 총회
08 해외동문 네트워크 현황

12 총장 인사말씀
14 HUFS Hot Issue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HIMUN 제 38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HUFS 글로벌봉사단 하계 봉사활동
2014 세계민속문화축전 개최
20 자랑스러운 외대인
김희경 MBN 앵커(이탈리아어과 92)
스탠다드그룹 김상백 회장(대학원 국제경영학과 12)
인도 교육부로부터 공로상 수상한, 김우조 교수(인도어과)
'대학생ICT비전 공모전' 대상 〈삼신녀〉 팀
30 HUFS 연구소 탐방
정치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글로벌정치연구소

Trend & Culture

33 Art & Culture
자연 속에서 추출해 낸 사람중심의 가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36 동문작가와의 만남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저자 안태근(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09)

HUFS News & Donation

40 HUFS 주요단신 뉴스
44 HUFS 교류협정 뉴스
45 HUFS 교수동정 뉴스
46 지식출판원 신간안내
47 사이버한국외대 뉴스
48 한국외대사업지원처 뉴스
50 HUFS 동문동정 뉴스
52 HUFS 발전기금 뉴스
53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AUTUMN Vol.85

발행일 2014. 10. 22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이유나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 2173. 2093
제작대행 (주)꽃피는청춘

100년 외대를 향한 든든한 초석, 해외동문 네트워크 강화

세계 57개국 85개 도시의 해외동문회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다

한국외대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많은 동문들이 해외에 진출했다. 외무 공무원, 사업가, 현지 법인 주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외대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그만큼 해외 동문 네트워크도 탄탄하다. '외대인'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뭉친 동문들은 끌어주고, 격려하며 이국 땅에서 서로의 발전을 돕는다. 전 세계 57개국 85개 도시에 조직된 방대한 규모의 해외 동문 네트워크는 한국외대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이자 세계총동문회의 출발점이다.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
(미국 댈러스동문회 고문,
스페인어과 59)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외국에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문대동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 댈러스 지역에서 외대 동문들을 모아 댈러스동문회를 만들었다. 이후 5~6년간 회장 자리를 지키며 동문회를 이끌다 지금은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외국에 나와 있으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더 강해진다"며 웃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문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도모하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장으로, 200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1년에 열린 제10차 세계한상대회 때는 그가 대회장을 맡아 행사 전체를 총괄했다. 지금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 올해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부산 벡스코 근처에 외대 버스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뭔가 알아봤더니 E-MBA 과정(현 해외글로벌 CEO) 수료생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더라고. 미국에서도 우연한 자리에서 외대 E-MBA 과정을 마친 동문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도 동문으로 대우해주니 모두들 외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작년에 LA에서 미주동문연합회 총회를 할 때 한 30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100명 정도는 E-MBA 출신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외대 E-MBA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덕분에 외대 동문 네트워크가 더욱 탄탄해졌어요."

그는 세계총동문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기뻐했다. 아울러 "미주동문연합회가 생긴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 세계총동문회가 만들어지면 각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학교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대는 학교 특성상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문이 그 어느 대학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 졸업생이 지금 12만이라고 하지요? 내가 스페인어과 59학번인데, 70명의 동기들 중 절반이 외국에 있어요. 우리 학번만 해도 그러니 다른 학과, 학번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만 그 많은 동문을 결집시키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에 비추어 그는 세계총동문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상대회의 경우 외무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중심이 되어 세계 각 도시에 있는 상공회의소와 현재 문 회장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두 경제단체와 협업한다고 한다.

"외대 세계총동문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우선 전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 외대 동문회장단을 모교로 불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겠지요. 한국에 있는 총동문회와 학교가 구심점이 되고, 외국에 있는 동문회장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해나가면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댈러스로 미주 동문들 초청해 총회 열 계획

문 회장은 미국 내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로 꼽힌다. 1971년, 서른 한 살의 나이에 500달러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는 가발가게 점원에서 시작해 액세서리·의류 등 여성용품 도·소매, 골프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매출 1억5000만 달러가 넘는 '삼문그룹'을 일구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8개의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고, 2016년 가을과 2017년 봄 완공을 목표로 객실 300개가 넘는 5성급 호텔 2곳을 건축 중이다.

김인철 총장, 문대동 회장, 김유경 처장(왼쪽부터)

두 호텔이 모두 완공되는 2017년에는 댈러스에서 미주동문연합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근처에 우리 골프장도 있으니 동문들이 모여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모교에 대한 애정이 국내에 있을 때와 달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죠. 그런데 나는 4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미국으로 와서 졸업장이 없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죠. 결국 2000년에 재입학해서 나머지 한 학기를 다녔어요. 6개월간 이문동에서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했지. 수업 끝나면 어린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참 즐거웠어요. 2001년 2월에 졸업장 받으면서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홀가분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사업가로서 많은 것을 이룬 그는 "나이가 드니 '후세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장학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다. 100만 달러를 출연해 사단법인을 만들어 매년 20명의 신학생과 일반 대학생 5~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실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창업할 때면 적극 지원해주고, 450여 명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한국인일 정도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힘을 쏟는다.

자신의 성공 비결로 근면, 성실, 노력, 열정을 꼽은 문 회장은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누구든 이 네 가지를 성실하게 추구하면 언젠가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 당당히 도전하라"고.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그의 모습은, 존경을 넘어 감동이었다.

콜롬비아 보고타 미주동문연합회 총회 개최

지난 7월 1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한국외대 미주동문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들은 한국외대 총동문회와 미주동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럽동문회, 아프리카동문회, 아시아동문회, 오세아니아동문회를 망라하는 세계총동문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전 세계 동문을 잇는 '한국외대 세계총동문회' 결성 결의

한국외대 미주동문연합회 창립총회는 2011년 7월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다. 당시 미주 각 지역 동문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영희(영어 70) 뉴욕총동문회장이 초대 연합회 회장에, 이덕선(독일어 58) 워싱턴 총동문회 이사장이 연합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영희 초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뉴욕 지역 250여명의 동문을 포함해 미주 전역에 총 1,000여 명의 동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미주동문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활발한 활동으로 외대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LA에서 미주동문연합회의 첫 번째 총회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모였다. 보고타 총회에는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김유경 국제교류·대외협력처장, 윤경욱 발전협력팀장,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이덕선 한국외대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북미·중미·남미 한국외대 동문회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총회 장소는 미국 애틀랜타로 결정

이번 총회를 주최한 미주동문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은 "미국의 각 지역 단위동문회를 연결하고 중남미까지 포괄하는 미주동문연합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여러 지역 동문회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 애틀랜타 총회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한 총동문회장도 "국내 어느 대학도 모방할 수 없는 미주동문연합회의 탄생과 발전에 감격을 금할 길 없다"는 말과 함께 동문연합회 구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근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룬 모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외대 세계총동문회 결성 안이 상정돼 동문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김인철 총장이 "총동문회와 미주동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럽동문회, 아프리카동문회, 아시아동문회, 오세아니아동문회를 망라하는 세계총동문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동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는 김유경 국제교류·대외협력처장을 중심으로 곧 세계총동문회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로벌 CEO' 국내·외 과정 수료한 동문들 맹활약

한국외대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동문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주 지역에서는 경영대학원의 '글로벌 CEO 과정'을 통해 배출된 동문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2007년 한국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미국 한인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뉴욕·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워싱턴DC 등에서 개설한 '글로벌 CEO 과정'은 재미사업가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꼽힌다. 벌써 700여 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미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인도네시아에도 개설되었다. 홍콩, 상하이도 개설 예정 지역이다. 앞으로도 한국외대는 MBA, 글로벌 CEO 국내과정, 글로벌 CEO 해외과정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학부, 대학원 졸업생들은 물론 이들을 모두 아우르게 될 '한국외대 세계총동문회'는 모교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계총동문회의 출발점이 될 해외 동문 네트워크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으로는 미주 지역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북미 대표 국가인 미국에는 비교적 많은 동문들이 진출해 LA, 남가주, 북가주, 뉴욕,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 하와이 등지에 일찍부터 동문회가 조직됐다. 캐나다도 밴쿠버와 토론토에 각각 동문회가 있고, 연합회 형태의 총동문회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12개국에 동문회가 있다.

미주 지역 동문들은 2011년 이들 단위별 동문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미주동문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정례 모임도 만들어 해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LA에서 총회를 연 데 이어 올해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모였다. 내년 총회 장소는 미국 애틀랜타로 정해졌다.

아시아권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동문들의 교류가 활발하다. 일본이 동경 한 곳에 동문회가 있는데 반해 중국은 광주·남경·북경·상해·심양·심천·천진·청도·항주 등 여러 도시에 분포해 있다.

또한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터키,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동문들의 모임이 있다. 중동 지역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두바이·아제르바이잔·요르단·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양주에는 뉴질랜드와 호주 멜버른·시드니에 각각 동문회가 있다. 호주의 경우 총동문회도 운영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는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 직원으로 파견된 동문들이 비교적 많다.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함부르크,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슬로바키아, 영국 런던,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로마, 체코, 폴란드, 프랑스 파리, 헝가리 등에서 동문회가 열린다.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어서 나이지리아 라고스, 이집트 카이로, 튀니지에서 외대인들의 모임을 만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지역만 57개국 85개 도시. 지역에 따라 회원 수의 격차가 크고 정례모임의 유무 등 동문회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문회가 이국 땅에서 외대인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단위, 국가 단위 동문회는 세계총동문회의 출발점이다. 이들이 미주동문연합회처럼 대륙별 모임으로 합쳐지고, 이들이 다시 연합회 형태로 구성되면 마침내 전 세계 외대인을 하나로 잇는 세계총동문회가 탄생된다. 동문들이 마음을 모을 때, 꿈은 현실이 된다.

85개 해외동문지부 리스트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멕시코
미국 L.A
58 미국 남가주
59 미국 뉴욕
60 미국 동문연합회
61 미국 마이애미
미국 북가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시카고
미국 애틀란타
미국 워싱턴
미국 중서부
미국 텍사스
미국 플로리다
미국 하와이
엘살바도르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 총동문회
캐나다 토론토
코스타리카
파나마

Asia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호지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싱가포르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테헤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동경
중국 광저우
중국 광주
중국 남경
중국 북경
중국 상해
중국 심양
중국 심천
중국 천진
중국 청도
중국 항주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필리핀
홍콩

Africa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
이집트 카이로
튀니지

Europe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함부르크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슬로바키아
영국 런던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로마
체코
폴란드
프랑스 파리
헝가리

Oceania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멜버른
호주 시드니
호주 총동문회

Mini interview

세계총동문회 결성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김유경 국제교류·대외협력처장

"세계총동문회 결성에 대한 미주 지역 동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북미·중미·남미 지역 동문회가 합쳐진 미주동문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각 국가별·대륙별 단위 동문회를 활성화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보고타 미주동문연합회 총회에 다녀온 김유경 처장은 "세계총동문회 결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성과"라며, "우선 지역별로 동문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잘 운영되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미주의 경우 일찍 진출해 탄탄하게 자리잡은 기업가들이 많아 동문회가 활성화된 반면 중소 언어군 지역으로 갈수록 활동이 미미합니다. 서유럽 쪽은 대기업 현지 법인 주재원이나 코트라(KOTRA) 직원으로 파견나가 있는 동문들이 많아 희망적이고, 중국과 일본도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10월 경에 각 지역 동문회장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가능한 분들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김유경 처장은 동문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대 동문은 학부·대학원 졸업생뿐만 아니라 경영대학원의 '글로벌 CEO 국내·외 과정'을 통해 구축된 전 세계 동문 네트워크가 모두 포함된다. 그는 "구성원의 외연을 넓히면 그만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그 어느 대학보다 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세계총동문회를 시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총동문회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동문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랑하는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어가는 가을에 한 분 한 분 강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총장에 취임한 후 두 번째 학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 학교는 내실 있는 변화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전공능력뿐만 아니라 인문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양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미네르바교양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접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교양학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약을 맺어 대학 상호간 개방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교양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LD(Language & Diplomacy)학부를 신설하여 우리 학교의 우위 영역인 언어에 외교를 결합한 외교전문가 양성을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LT(Language & Trade)학부를 신설하여 2015년에 신입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LT학부는 우리 한국외대에 특화된 언어교육과 첨단의 통상지식을 융합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산업 및 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1954년 설립된 우리 한국외대의 역사는 부단한 창조와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외대는 한국 제1의 글로벌대학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우리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 생활 터전을 개척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거점마다 동문회가 조직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며 모교인 우리 학교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던 미주 동문연합회 총회에서는 전세계 한국외대 동문 네트웍을 연결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자는 한국외대 세계 총동문회 창립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현재 총동문회와 각 지역 동문회 간 활발한 접촉이 진행 중이며 2015년 하반기에는 한국 대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외대 세계 총동문회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졸업동문들의 도전과 성취, 모교 사랑의 마음을 이어 저와 우리 학교는 재학생들이 더욱 큰 시야를 가진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외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백년을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할 'HUFS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실용적이고 선도적인 교육방법과 교과과정, 융합전공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선진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학교가 일층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9월 중순에 마감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접수 결과 우리 학교는 지난 해 13.79대 1에 비해 대폭 상승한 20.9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외대가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가 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며 나아가 세계인을 양성하는 요람이 된 것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 등 우리 한국외대 가족 전 구성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한국외대의 총장으로서 학교를 빛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우리 한국외대 모든 가족분들도 연말에 맺을 풍성한 결실을 기약하며 무엇보다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 인 철

우리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 준비한 가을밤의 어울림의 화음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지난 10월 13일 우리대학 오바마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우리대학과 한국 최고의 명문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 Symphony Orchestra와 우리대학 관현악단 HUFSPhil이 한껏 무르익은 가을밤을 아름다운 어울림의 화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번 음악회는 장일범(음악평론가, 노어과 87)동문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외대 동문들과 재학생의 재능기부로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장일범 동문의 음악회의 준비과정과 한예종과의 협연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하였고 HUFSPhil과 KNUA Symphony Orchestra의 연주로 행사의 막을 열었다.

1부에서는 HUFSPhil과 KNUA Symphony Orchestra의 협연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은(영어교육 08)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 소프라노 서활란과 테너 류정필이 출연하였으며 서활란 소프라노와 류정필 테너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음악회 1부의 분위기는 절정에 올랐다.

약 10분간의 인터미션 후 펼쳐진 2부는 〈비오는거리〉로 유명한 이승훈 동문(국제통상 84)과 이정열 동문(아프리카어 87)이 막을 열었다. 이후 외대합창단이 〈남촌〉과 〈Let it go〉를 열창하였으며 특히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Let it go〉를 부를 때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외대합창단의 합창 이후 다시 HUFSPhil과 KNUA Symphony Orchestra의 연주가 이어졌고 음악회의 마지막은 HUFSPhil과 KNUA Symphony Orchestra, 외대합창단, 전체 출연진, 김인철 총장, 이남주 이사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이덕선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이 모두 무대에 올라 교가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 되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외대가족들의 축제의 장

이번 60주년 음악회는 이남주 이사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이덕선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박철 전 총장, 박진석좌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을 포함한 많은 내외귀빈과 다양한 외대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을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즐겼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외국인 학생, 외대 교직원의 가족들까지 참석하여 준비되어 있는 객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총감독과 사회를 맡은 장일범 동문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하고 재미있는 진행과 해설로 클래식에 조예가 깊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공동교양학부를 운영하기로 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준비한 음악회였기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 대학의 친선과 협력이 앞으로 더욱 큰 협력으로 발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음악회였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지휘자협회 회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교수를 맡고 있는 정치용 교수가 지휘를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준비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된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과 외대가족들은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음악회의 감동에 대한 즐거운 여운을 나누며 한바탕 축제의 장을 만끽하였다.

HIMUN(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제38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방안 논의

지난 8월 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는 HIMUN(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이 주관하는 모의유엔총회가 열렸다.
올해 강원도 평창(9. 27~10. 17)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요 의제로 상정, 대학생의 시각에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 척추 동물의 3분의 1이 감소되었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이 10% 더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유전자 변형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취급·이동 등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국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질병의 극복, 자연재해 예방 등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물 자원의 이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인구 증가, 야생 동식물 남획, 개발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한다. 자원 이용국(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과 자원 보유국(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것이 바로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도 나고야 의정서 이행 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처럼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생물의 멸종 방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HIMUN(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은 제38차 모의유엔총회의 의제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으로 정했다. 1958년 설립돼 매년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 온 HIMUN은 실제 UN 총회의 형식으로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 모의유엔 최초, HIMUN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두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총회를 개최해 규모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모의유엔총회라는 평을 얻었다.

13개 국가 대표가 자국의 언어로 기조연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총회 시작에 앞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Feelgood(필굿)'이 국악 공연으로 축하 무대를 꾸며주었다. 이후 이성하 대외부총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내외빈이 총회장을 찾아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의유엔총회에 참여하는 각국가 대표들이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으로 연설 순서는 알파벳 순에 따른다. 이번 총회에는 대한민국, 이집트, 호주,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총 13개 국가가 참여했다. 1부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접근과 협력에 대해, 2부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HIMUN 모의유엔총회는 다른 모의유엔이 회의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유엔 의사규칙에 따라 각국 대표들이 자국 언어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특징. 발표 내용도 6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와 한국어로 통역된다.
총회 현장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날 총회장에도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교생과 이들을 동반한 교사·학부모 등이 참석해 진지한 표정으로 총회를 관람했다.
모의유엔총회 준비를 총괄한 여민주 사무총장(중국지역학전공 11)은 "이번 총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대학생의 시각에서 미리 논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 라오스에 뿌린 희망의 씨앗

HUFS 글로벌봉사단 하계봉사활동

HUFS 글로벌봉사단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캄보디아(서울캠퍼스)와 라오스(글로벌캠퍼스)로 하계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서울캠퍼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글로벌캠퍼스는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각각 열흘간의 일정으로 현지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환경 개선,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태권도, 난타, 부채춤 등 문화공연을 준비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마련했다.

서울캠퍼스 글로벌봉사단은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위치한 봇뱅초등학교를 찾았다. 이곳에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언어 · 음악 · 체육 · 예능 등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내 · 외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했다.

봉사 활동을 마친 후에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 지역을 돌아보는 문화탐방 시간도 가졌고, 현지에 거주하는 동문 선배들과도 만났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국제통상학과 4학년 조영재 학생은 "현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이 마음 아팠다"며 "글로벌봉사단원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고 10일간의 일정이 무척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김시홍 학생복지처장과 박창호 학생감동팀장은 시하누크빌에 있는 라이프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구견회 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또한 글로벌봉사단의 활동을 참관하고 참가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시홍 학생처장은 출국 전 이루어진 봉사단 발대식에서 "한국이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해외봉사"라며, "단원들 모두 투철한 봉사 정신과 자부심을 갖고 봉사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서울캠퍼스보다 열흘 먼저 출발한 글로벌캠퍼스 봉사단은 라오스 비엔티안 농하이 마을에 머물렀다. 이들 역시 현지 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과학을 가르치는 교육봉사와 함께 교실 내벽 수리, 교내외 페인트 칠 등의 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 태권무, 부채춤 등의 문화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일정으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 지역 문화탐방 및 현지 KOICA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도 진행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복지처 윤성우 처장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및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시아교류협회, KOICA 등 각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계 HUFS 글로벌 봉사는 (사)아시아교류협회와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하는 활동. 2011년 4월 창단된 HUFS 글로벌 봉사단은 이번 봉사 지역인 캄보디아 · 라오스 외에도 멕시코, 인도, 태국 등지를 다녀왔다.

한국외대에서는 글로벌봉사를 학생들이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특성 활용한 각국 민속음악 및 무용 공연

2014 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 개최

지난 9월 20일 한국외대 세계민속문화축전 준비위원회는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2014세계민속문화축전'(세민전)을 개최했다.

세민전은 1971년 시작되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로 글로벌캠퍼스 각 언어학과 내 학회 및 동아리가 주축이 된다. 올해는 17개팀이 참가하여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본 공연 시작 전에는 세계 문화 체험의 거리, 세계의상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하여 일반인들에게 세계 각국의 음식, 전통놀이 및 의상 등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했다.

세민전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외대만의 자랑스런 축제다.

행사를 진행한 세민전 준비위원회위원장은 "순수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민속공연팀으로 각국의 민속음악 및 무용 등을 뛰어난 기량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우리대학을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MBN 앵커
(이탈리아어과 92)

김희경

교황 시복식 진행은 큰 영광이자 특별한 경험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큰 내한 행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시복식이었다. 교황이 직접 순교자의 땅에서 '복자'의 칭호를 내리는 이 뜻깊은 행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방송됐다. 이날 서울대교구 김환수 신부와 함께 시복식을 진행한 사람은 MBN의 김희경 앵커. 유창한 영어와 깔끔한 진행으로 주목받은 그는 "우리나라에서, 교황이 직접 거행한 시복식에 참여한 것 자체가 큰 영광이자 축복"이라고 말했다.

시복(諡福)은 신앙과 덕행을 인정받아 천주교가 존경할 대상으로 모시는 '복자'의 칭호를 허락하는 것으로, 보통 바티칸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 거행될 때는 교황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례적으로 이번 시복식은 순교자의 땅에서 교황이 직접 집전했다. 카톨릭 신자인 김희경 앵커는 "행사 전날 밤엔 잠도 설쳤다"며 웃었다.

"주최 측에서 선정한 거라 연락받고 깜짝 놀랐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과 다른 성격의 행사라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복식은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신자들은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공식행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 시복식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무척 뜨거운 날이었는데도 평소와는 다른 힘이 생겨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는 외대 이탈리아어과와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마치고 1998년 MBN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정치부와 경제부, 국제부, 사회부를 거쳐 앵커가 되었다. 지금은 평일 오전 6시 50분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 MBN'의 단독 진행을 맡고 있다. 그는 그동안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의 진행은 물론 각종 굵직한 국제 행사와 해외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도맡아 해왔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 행사 진행을 통해 입증된 실력이 이번 시복식 진행자로 발탁된 배경으로 꼽힌다.

시복식이 끝난 뒤 화제가 된 건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특파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 뉴욕에서 5년 남짓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국내에서 공부했다. 미국에 살 때는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집에서 늘 우리말을 썼고, 귀국한 후에는 원서를 많이 읽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며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기자가 된 후에도 외신을 꾸준히 접했어요. 초기에 영어 뉴스 앵커를 3년 정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후 앵커로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한국어 방송이었지만 외국 유명 인사 인터뷰와 대담, 매년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사회 때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매력적인 직업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그는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을 했다.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에 가입해 언어를 활용한 여러 업무에 눈을 돌리기도 했고, 예술단체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는 등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을 통해 언론사로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

"어릴 때는 패션 디자이너에서부터 국제변호사까지, 다양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언론이라는 분야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원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을 택한 것도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다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먼저 입사한 선배의 권유로 입사시험을 치렀다. 이후 지금까지 기자 겸 앵커로 뉴스 현장을 누비며 살고 있다. 그는 "생방송을 하면서 피말리는 순간이 많았다"며 "갑자기 발생한 일을 생방송으로 보도하려면 평소에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고 공부한 내용, 그리고 순발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등의 연설을 사전 자료 없이 생방송으로 동시통역하기도 했어요. 이 일을 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다루고 있고, 바로 전 부서였던 정치부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회 팀장으로 취재했어요. 가까운 곳에서 당사자들과 만나며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경험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은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제 베테랑 언론인이 된 그는 언론사 입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스스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책 등을 통한 간접경험도 많이 쌓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공부할 때도 한 가지를 파고들어 자신의 전문분야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 영역을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궁극적으로 언론이란 보도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자든 앵커든,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예전보다 좋아졌더라고요. 외관도 그렇고, 학생들 분위기도 역동적이었어요. 다만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감성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배로서, 폭넓은 사고와 상상력을 키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웃음)."

그는 "'글로벌 인재' 하면 역시 한국외대를 따라갈 곳이 없다"며 "이미 졸업한 동문들, 현재 다니고 있는 후배들 모두 자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엔 의례적인 인사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모교와 후배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까닭이다.

스탠다드그룹 김상백 회장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12

金相伯

기회는, 꿈꾸고 공부하는 사람의 몫

두 번의 사업 실패를 딛고 창업 8년 만에 매출 1,000억 원 대의 기업을 일군 김상백 회장.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그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돈을 가치있게 쓰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최근 외대에 1억 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사업가로서의 시작은 누구보다 빨랐다. 대학생이던 스물한 살,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을 택했다. 그러나 두 번의 도전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 8억 원의 빚까지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마침 고시를 보려면 토익 700점 이상의 공인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고시촌에 일대 혼란이 일던 때였다.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던 그는 하루 세 시간씩 영어 강사 일을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했다.

하지만 고시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3년여 세월 동안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더 허송세월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취업을 택했다. 금융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면서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그는 틈틈이 무역과 관련된 공부를 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한 무역 회사의 법무 관련 사건을 맡게 된 것. 한동안 파트너로서 그를 지켜본 무역 회사 사장은 성실한데다 법과 무역을 두루 잘 아는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알루미늄을 수입해 국내에 파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국내 영업을 담당했는데 혼자서 연매출 600억 원까지도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10억 짜리 수표를 주면서 혼자 해보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알루미늄을 샀는데 당시 환율이 800~900원대였어요. 알루미늄 시세는 주식처럼 변동 폭이 크거든요. 오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팔면 많게는 하루 800만 원 이상도 벌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진 빚을 모두 갚았지요."

문막 공장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산량 갖추게 돼

이렇게 마련한 자금과 그동안 쌓은 창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는 2006년, '스탠다드펌'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했다. 2년 뒤에는 법인으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루미늄을 수입해 유통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제조업에도 진출해 알루미늄을 빌렛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다.

알루미늄 빌렛은 알루미늄에 철과 마그네슘 등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새시, 가드 레일, 휴대폰 부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의 주 재료가 된다. 그는 "석유 산업으로 예를 들면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주유소에 파는 정유회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막 자리를 잡아갈 무렵 위기가 닥쳤다. 2009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것. 국제 경제가 흔들리면서 환율은 급등했고, 알루미늄 값은 반값으로 떨어졌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요청까지 거세졌다. 도산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며 안정을 찾기까지 2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2012년에는 파주 공장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제조에 뛰어들었다.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은 계열사로 분리했다. 한편 리먼 사태를 겪으며 국제 경제에 너무 무지했다는 반성과 함께 경제연구팀을 만들어 매일 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체적으로 연구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자료 중 필요한 것들을 모은 형태였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것이 경제전문잡지 창간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인수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 문막에 새 공장을 짓고 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사를 키우고 업종을 다변화해 현재 스탠다드그룹의 계열사는 6개에 이른다.

특히 그는 문막 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막 공장과 파주 공장이 100% 가동될 경우 아시아 최대 생산 규모가 된다"며, "내수 판매 확대는 물론 현재 10% 정도인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매출도 8,000억 원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는 나를 바꾸어 준 곳, 장학금 기부 결심한 계기

사업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창업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을 중퇴했지만 지적 호기심이 유난히 많았던 그는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7년 외대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올 초에는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외대 학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인 '재무전략'을 강의한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선배로서 그는 학생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되 그에 필요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강조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꿈을 정리해보면 그걸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 지가 보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공부를 해야 그게 기회라는 걸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강의해보고 싶다는 꿈도 이루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얻은 게 정말 많아요. 이번에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20대 때부터 'To do list'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목록에 새로운 꿈을 추가한다. 반대로 이룬 것은 지워나가고 있다. 박사학위 5개, 현금 300억, 요트 구입 등 한때 70여 개에 달했던 꿈 목록이 어느새 40여 개로 줄었다. 그 사이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될 지는 그도 아직 모른다. 그 중에서도 그가 사업가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도 대기업을 만들 수 있고,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영역도 알루미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는 책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김상백 회장.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젊고 유능한 사업가의 미래가 문득 궁금해진다. 서른 다섯, 이룬 것보다 이룰 것이 더 많은 나이이기에.

인도 정부서 공로상 수상한
김우조 교수(인도어과)

김우조

교육과 연구 통해 한국-인도 문화 교류에 기여한 1세대 인도학자

김우조 인도어과 교수가 지난 8월 29일 인도 교육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강단에서 힌디어 교육에 헌신하고, 인도 문화를 연구·소개함으로써 한국-인도 양국 간 문화 교류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 인도 교육부는 1994년부터 해마다 인도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 한 명을 선정해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외대 인도어과 1회 졸업생(72학번)인 김우조 교수는 인도에서 학위를 받고 강단에 선 1세대 인도학자다. 이번 수상 이전에도 2007년 뉴욕에서 열린 8차 세계힌디대회에서도 인도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도학회 2대 회장으로 학회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신설학과인 인도어과를 택했다는 김 교수는 졸업 후 인도 정부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났다. 인도에서 힌디 문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81년 모교에 부임해 33년간 후학 양성에 헌신했다.

제대로 된 교재나 전문 교육을 받은 교·강사진도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그의 존재는 단연 빛났다. 그는 학문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인도학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다. 특히 그가 총괄 책임을 맡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한국어-힌디어 사전〉은 힌디어 입문자들의 '바이블'로 꼽힌다. 김 교수 역시 영국 연수를 가려던 계획도 접고 안식년을 꼬박 바쳐 완성한 사전을 그의 학자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민과 함께 대조하면서 풀어가느라 막바지 작업 때는 하루 12시간씩 사전에 매달렸어요. 물론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 모두 함께 고생해 일군 성과이지요."

겸손함이 몸에 밴 그는 어떤 질문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를 강조했고, 인도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똑똑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학자로서의 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인도문학사를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넓은 땅, 많은 인구, 오랜 역사만큼이나 공부할 게 많은 인도 문학사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판 같다"며, "여성 문학, 고문학 등 한 분야를 연구할 때마다 한 조각의 퍼즐을 끼워 넣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소녀처럼 빛나던 김우조 교수. 그가 선보일, 국내 인도학계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역작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대학생 ICT비전 공모전' 대상 수상한
한국외대 〈삼신녀〉팀
공민정, 최지은, 윤해솔

삼신녀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한 태교, 이것이 바로 외대식 융복합

한국외대 학생들이 SK텔레콤이 주최한 '대학생 ICT 비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학중인 공민정·최지은 학생(10학번)과 독일어교육과 윤해솔 학생(12학번)이 그 주인공. '삼신녀'라는 재미있는 팀 이름으로 공모전에 참가한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에 태교를 접목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통신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학생의 시각을 통해 ICT와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시도하고 미래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이들은 총 508팀의 지원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삼신녀 팀이 제안한 '신 태교신기'는 태아의 수면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산모의 호르몬을 측정해 태아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공민정 학생은 ICT 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클라우드,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학생도 "대중교통 위치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도 ICT 기술 중 하나"라며, "사물에 인터넷을 대입시킨 개념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것을 ICT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민정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ICT와 다른 산업을 접목해 30년 후를 내다보기'였다. 트렌드 조사를 하던 삼신녀 팀은 최근 '육아 붐'이 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TV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고, 이 분야가 엄청난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미혼의 대학생들이 '태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계기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웃긴 일이 많았어요. 민정언니 핸드폰을 친구가 봤는데 검색어가 전부 태교, 육아, 임신 이런 것들이라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대요. 저희 셋 다 매일 그런 주제로 검색하니까 친구들이 '유부녀 핸드폰 같다'고 엄청 놀렸어요(웃음)."(최지은)

공민정 학생과 윤해솔 학생은 교내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LG다문화학교 캠프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 윤해솔 학생이 공민정 학생에게 공모전 참가를 제안했고, 공민정 학생이 같은 과 친구인 최지은 학생을 섭외해 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4월부터 진행돼 예선을 거쳐 시상식까지 3개월 남짓 이어진 공모전을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온 열정을 쏟은 이들은 "힘들었지만 좋은 성과를 얻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수상으로 500만 원의 상금과 외국 탐방 기회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와 별도로 학과에도 1억 원의 장학기금이 전달됐다.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이 기금은 앞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독일어교육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융합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가 수상에 큰 도움

"학과에도 혜택이 돌아가 더 기분이 좋아요. 시상식장에서 알게 된 건데, 또 다른 외대팀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대상으로 호명되니까 '또 외대야?',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학교 강점이 언어력이잖아요. 모국어만 할 줄 알면 국내를 기반으로 제한된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학교는 다양한 나라에서 경험을 쌓은 친구들도 많고 그만큼 넓은 시각으로 미래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윤해솔)

최지은 학생도 "어떤 전공을 해도 언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ICT에 없던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비결인 것 같다"며, "이것이 바로 외대식 융복합"이라고 덧붙였다.

공민정 학생은 "융합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공대생이 많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예선만 통과한다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문과이기 때문에 기술관련 공모전에는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지만 우리는 비전에 집중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다"며, "다양하게 도전하다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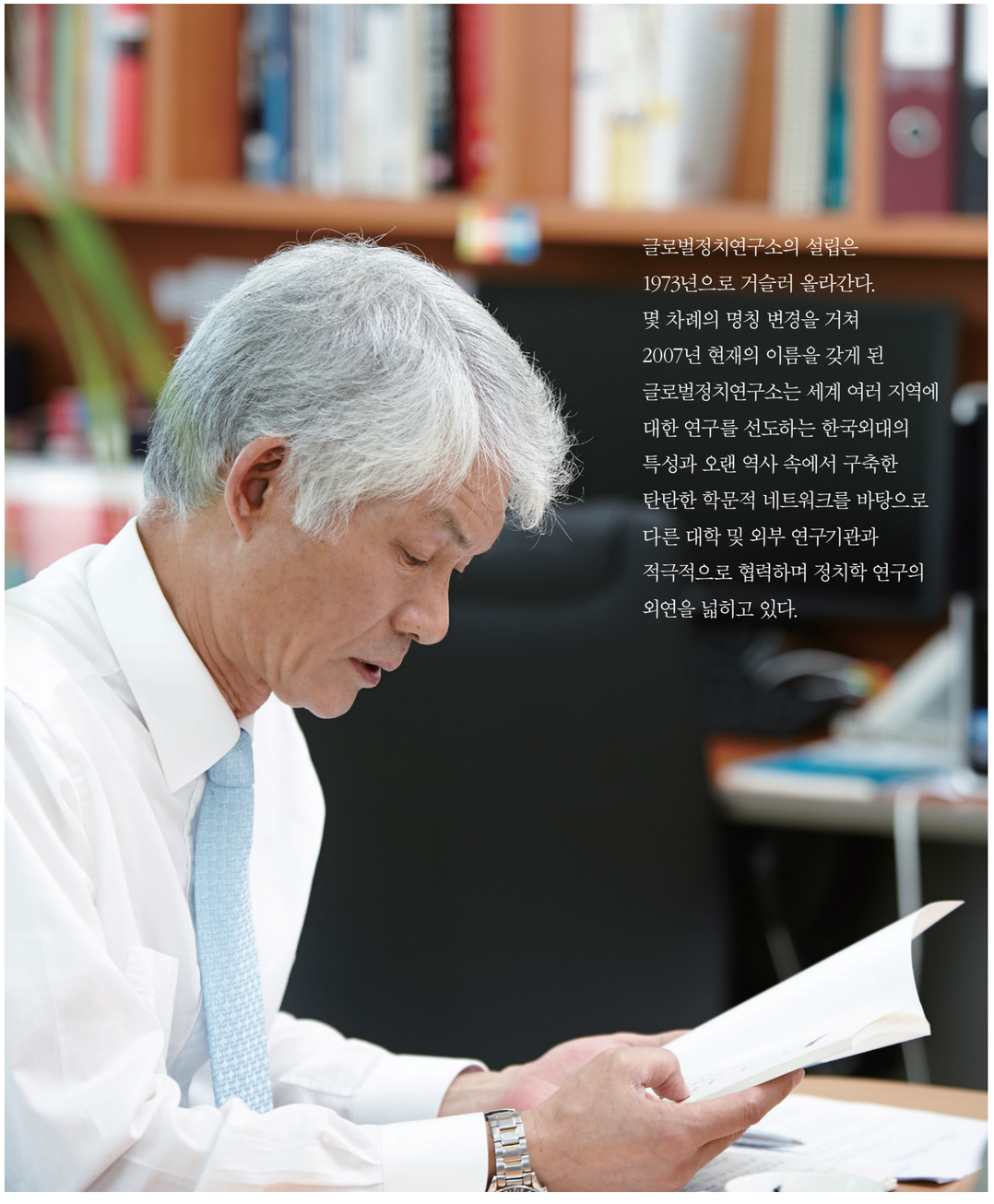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공모전을 통해 얻은 큰 선물이다. 정치외교를 이중 전공하고 있는 공민정 학생은 언론사 입사에 관심이 많지만 공모전 준비를 하며 기획 업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영어를 이중 전공하고 있는 최지은 학생은 "ICT를 공부하며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해솔 학생도 "대학생 신분으로 지원 가능한 선에서 예술경영, 무역,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해봤지만 이번만큼 강한 확신이 든 적은 없었다"며, "ICT처럼 사람을 향하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정을 바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신 태교신기'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기술로 구현돼 상용화되는 것도 이들의 꿈 중 하나다. SK텔레콤이 '공모전 입상작에 담긴 신선한 아이디어를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이디어를 제시한 수상자에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이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지 기대가 크다.

최지은

윤해솔



글로벌정치연구소의 설립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 차례의 명칭 변경을 거쳐 2007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글로벌정치연구소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외대의 특성과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한 탄탄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 및 외부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치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탄탄한 학문적 네트워크로 정치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다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의 변천사는 우리 현대사의 정세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출발점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3년에 문을 연 '새마을연구소'였다. 1979년에는 한국지역문제연구소로 바뀌었다. 이후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국내를 넘어 외국 정치·행정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에 공공정책연구소로 개명했다. 1998년에는 사회과학연구소로 확대·개편했다가 2007년 글로벌정치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회과학연구소 시절까지만 해도 연구소는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했다. 학제 간 연구나 융합 연구도 중요하지만 특정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두 학과가 분리·독립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행정학과는 국정관리연구소를, 정외과는 글로벌정치연구소를 만들었다.

'각자의 연구 분야에 집중하자'는 연구소 설립 취지에 걸맞게 글로벌정치연구소는 현재 국내·외 정치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세계평화'가 주요 연구 주제다. 민주주의가 국내 정치와 연관돼 있다면 세계 평화는 국제 정치의 범주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국가 간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국내외 정세를 두루 연구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치러진 학술회의들은 모두 이 주제와 연관돼 있다.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리는 학술회의는 연구소의 중요한 행사. 지난해 가을에는 아렌트학회와 공동으로 '한나 아렌트와 민주주의'를, 올 봄에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연구소 발간 학술지를 등재후보지, 등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

글로벌정치연구소는 학술회의 때 다른 대학 연구소나 연구기관, 학회를 적극 참여시킨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정부 기관의 수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와도 평화 연구를 진행하는 등 외국 기관과의 교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장 직을 맡고 있는 홍원표 교수(LD학부)는 "학문적 네트워크 강화는 연구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며, "통일연구원, 정치정보학회, 비교민주주의학회 등 우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회 및 연구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일 년에 두 번 〈글로벌정치연구〉라는 제호의 학술지도 발간한다. 〈글로벌정치연구〉를 더욱 수준높고 전문적인 학술지로 발전시켜 등재후보지, 나아가 등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다. 학술지 등재는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발행 횟수, 논문 게재율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인 학술지를 등재후보지로 인정하고 이 자격이 2년 이상 유지되면 등재지로 격상해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신청자격을 줄 때 활용하는 제도다.

가을 정기 학술회의를 앞두고 있는 요즘, 연구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11월 7일로 예정된 정기 학술회의가 정치외교학과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외과 75학번인 홍원표 교수는 "그동안 정외과 출신 중 학위를 받은 사람이 60명 정도 된다"며, "이번에는 동문 박사들이 발표자·토론자로 나서는 특별한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엔 은사들을 중심으로 정외과 50년을 회고하는 패널을 구성할 계획이다.

연구소장 2년의 임기 중 한 학기를 남겨둔 홍 교수는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단순한 교내 연구소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려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를 지도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부·대학원생들에게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지난해 석·박사 과정생들과 콜로키엄을 해보니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연구소가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나라 정치학 연구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노호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스톡홀름대학교 경제학박사
스칸디나비아 지역학, EU 경제 담당
한국외대 입학처장, EU연구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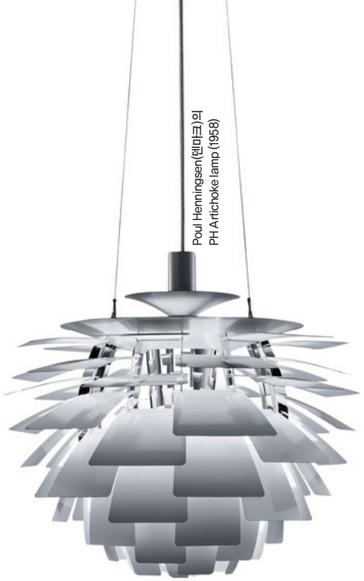
자연 속에서 추출해 낸 사람 중심의 가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Bang & Olufsen(덴마크)의 비디오 오디오 세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5개국을 일컫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짧은 기간에 이룩해 놓은 그들의 수준 높은 복지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은 물론 그들만의 독창성을 만들어 왔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총 인구 2,600만 명에 불과하며,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고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최고를 향한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바이킹의 후예로써 타고난 발명가 정신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냈음은 물론 기술혁신의 선봉에 서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벨상의 본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케아(IKEA)의 나라, 레고(Lego)의 나라, 스토케(Stokke)의 나라, 노키아(Nokia)의 나라가 되었으며, 첨단산업인 IT 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제 스칸디나비아 5개국은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다시 한번 스칸디나비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Poul Henningsen(덴마크)의 PH Artichoke lamp (1958)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인체공학적이고 자연친화적임과 동시에 높은 기능성 및 내구성과 함께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간단한 생활용품에서부터 거대한 산업기계에 이르기까지 단순성에 다양성을 더해가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이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물론 전세계인의 일상이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이러한 특징은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 생활 방식,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미 첨단산업화의 과정을 마무리 지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보다 높은 가치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경쟁력의 방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디자인을 경쟁의 무기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과 여유로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서 뽑아낸 형상과 색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그리고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는 사치스럽지 않은 꾸밈 등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해주며, 언제나 작품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중심인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엄마의 품과도 같은 자연 속에서 살아온 그들만의 생활 패턴이 그들의 디자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디자인에 삶의 가치와 사상이 담겨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에는 인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가 담겨있다. 지구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가정은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어야 했으며, 그런 따스함과 아늑함을 디자인을 통해 꾸며주고자 했던 것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이념이었다. 소득,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스칸디나비아인 모두에게 '좋은 디자인'은 타고난 권리로 인식되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전통적 가치를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인의 삶과 욕구의 다양성을 디자인 속에 담아내면서 지속적으로 물리적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

Bang & Olufsen(덴마크)의 TV 세트

그러나 초기 단계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오늘날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스칸디나비아디자인은 초기 단계에 실용성과 기능성, 그리고 내구성과 안정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투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출시된 Volvo 700 시리즈까지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실용, 기능, 내구, 안정의 개념에 미적 감각이 더해진 새로운 모습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가 바로 1950년대 이후 세계인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그 정통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이유다.

Mari Mekko사(핀란드)의 활상기 매장 (2011)

Björn Dahlström(스웨덴)의 의자 "The Kaskad" (2012)

일반적으로 이들 5개 나라의 디자인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 부르고는 있지만 이들 5개 나라의 디자인은 문화적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며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실용예술 및 디자인의 번성 과정에 있어서 각국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핀란드의 디자인 평론가인 안네 스텐로스(Anne Stenros) 박사는 스칸디나비아 5개국 디자인의 차이점을 각국의 민족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 "감성적 차원에서 볼 때 덴마크인들은 약간 더 남부적이고, 핀란드인들은 약간 더 동부적이고, 노르웨이인들은 약간 더 북부적이며, 스웨덴인들은 이 모든 요소들의 황금 대칭점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지리적 위치상 그들 고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생활용품, 가구, 의류, 그래픽, 건축,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수없이 많은 디자이너들을 배출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디자인 교육기관에서 미래의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모습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 디자인은 삶의 당연한 일부이면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세계인들에게 또 다른 새로움을 선보여주고 있지만 사람이 중심인 사회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느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그들처럼 완벽하게 맛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인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디자인은 손에 잡히고 몸에 느껴지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사람이 중심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있는 자연 속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저자 안태근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09, 호남대 교수)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바친 삶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의 유해는 아직도 중국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안 의사의 유해 환국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안태근 교수(전 EBS PD)가 지난 3월, 그간의 노력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낸 유력한 유해 매장지를 세상에 알리고, 유해 환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출간 동기를 밝혔다.

서른 살 청년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뤼순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시간인 10시 15분에 맞춰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했다. 안 의사의 동생들이 사체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고, 감옥 뒷산에 매장되었다.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여러 차례 유해 찾기가 시도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 회장이기도 한 안태근 교수는 민간 차원에서 안 의사의 유해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해까지 EBS PD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해 지금은 호남대 교수(문화산업경영학과)로 강단에 서고 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그는 한국외대에서 신문방송학으로 석사학위를, 문화콘텐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외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에도 출강한다.

그는 PD 시절, 여러 편의 안 의사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1990년 〈대한국인 안중근〉을 연출한데 이어 2009년 3월에 안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작으로 어린이드라마 〈대한국인 안중근 4부작〉을 만들었다. 2010년 3월에는 〈안중근 순국 백년-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뤼순의 죄수묘지 구역을 한국 방송 최초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안 의사 유해 환국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는 민간 차원의 힘을 모으기 위해 2011년 '안중근 뼈대찾기 사업회'를 만들었다.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역사학자들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사업회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안 의사는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주제로 한 드라마, 다큐 등을 만들며 유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지요. 특히 다큐 제작 때, 많은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매장 지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안 의사 유해 찾기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뼈라도 고국에 묻히고 싶어 했던 안 의사의 유언 지켜드릴 것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스토리하우스)는 그와 김월배 다롄외국어대 교수(뤼순감옥구지박물관 초빙연구원)가 함께 펴냈다. 안 의사의 순국일인 3월 26일에 맞추어 발간한 이 책은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대한 노력', '안중근 뼈대 찾기 사업회의 기록', '우리가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 묘지를 지목하는 이유' 등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중국 현지에서 조사한 김 교수가 썼고, 그는 2부와 3부를 맡았다.

그는 안 의사의 유해가 뤼순일아감옥구지(旅順日俄監獄舊址) 부속 죄수묘지에 묻혔다고 확신한다. 뤼순 현지 조사와 안 의사 서거 후 묘지를 참배한 증인들,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얻은 결론이다. 책 속에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그는 "안 의사는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순국 104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 의사의 뼈대를 고국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매장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마친 상태지만 발굴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땅이라 외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까지 정부 기관에 여러 차례 제안서를 냈는데 아직 만족스러운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얼빈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했고, 중국 내에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해 찾기를 시도하는데 더없이 좋은 시기예요. 제가 책을 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발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안태근 교수에 따르면 2008년 우리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10억 규모의 발굴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엉뚱한 지역을 발굴해 실패했다고 한다. 더 이상의 발굴은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력한 매장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과정을 책을 통해 상세하게 밝혔다는 것. 그는 "유해 환국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라고 말했다.

"뼈라도 고국에 묻히기를 바랐던 안 의사의 유언을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외대 동문 여러분들에게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HUFS News & Donation

HUFS 주요단신 뉴스
HUFS 교류협정 뉴스
HUFS 교수동정 뉴스
지식출판원 신간안내
사이버한국외대 뉴스
한국외대사업지원처 뉴스
HUFS 동문동정 뉴스
HUFS 발전기금 뉴스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학생생활상담연구소(서울)에서는 5월 1일(목)부터 6월 10일(화)까지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나의 강점 찾기', '나를 알아가는 힐링 공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구성됐다. '나의 강점 찾기'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나를 알아가는 힐링 공간'은 MBTI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탐색 프로그램으로, 기질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자존감을 잃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존감을 향상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진행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고자 마련되었다.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한국외대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2일(금)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양 캠퍼스 1,687명(학사 1,318명, 석사 322명, 박사 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인철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열정을 다해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마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큰 뜻을 펼치고 사회의 건각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가족, 친지, 선후배 등 1,0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에 함께 했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완전정복 설명회 개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완전정복 설명회'를 8월 9일(토) 오후 2시,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본교에 관심이 있는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약 2,000여 명을 초청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과 신설된 LT(Language & Trade)학부 및 학생부 종합전형안내 등 효과적인 수시모집 지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체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지원 학과 선택의 고민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받아 5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11일(목)부터 1:1 한국외대 맞춤형 입시 상담을 시작했다.

제14기 KOTRA 해외무역관 인턴 발대식

한국외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인턴 발대식이 7월 14일(월),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14기 해외무역관 인턴은 전 세계 50개국 63개 무역관에 총 91명이 파견되어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경제 관련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통·번역 업무, 국내 기업 현지무역활동 및 투자유치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2007년 6월 KOTRA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이후, 2008년 1학기 14개국 16개 무역관에 16명의 학생 파견을 시작으로, 금번 2014년 2학기 50개국 63개 무역관에 91명 학생 파견까지 7년간 약 1,100명의 우수 학생들을 전 세계 KOTRA 해외 무역관 인턴으로 선발·파견하고 있다.

HUFS-YTN, 제6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

우리대학과 YTN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가 7월 23일(수) ~ 24일(목) 양일간 서울캠퍼스 애경홀, 인문과학관, 대학원 건물 등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영어토론대회에는 전국의 고등학생 56개 팀, 168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제관 애경홀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YTN 배석규 사장과 황명수 미디어사업국장을 비롯하여 김인철 총장, 정철자 통번역센터장, 이길영 TESOL전문교육원장, 장태엽 FLEX센터장이 참석하여 토론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국내 글로벌 CEO과정 홈커밍데이 개최

제1회 한국외대 글로벌 CEO과정 홈커밍데이가 6월 24일(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우리대학 개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원우들 간의 친목 도모와 글로벌 CEO과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총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하영명·이종윤 명예교수, 전임 경영대학원장들과 권석균 현 경영대학원장 등을 비롯하여 1기부터 현재 재학 중인 25기까지 전 기수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리대학 60주년 기념 동영상 관람과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제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GCC-KOLAC, 센터장 정경원 교수)는 6월 18일(수), 19일(목) 양일간 멕시코 케레따로주(Estado de Querétaro)에 있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국제학술대회(Loo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etwork Building between Korea, Latin America and Mexico)'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에서 참가했으며, 총 17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정경원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경주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적인 환경 협력의 노력은 이제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제8회 한세실업배 바둑 대학동문전 우승자 일행 총장 내방

한세실업배 바둑대회 대학동문전 우승자 일행이 7월 1일(화), 서울캠퍼스를 방문했다. 민들레(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95) 학생을 비롯한 6명의 동문과 재학생은 김인철 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으며,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이 배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우리대학은 이 대회에서 지난 2회와 5회에 이어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6월 21일(토),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치러졌으며, 우리대학은 16강에서 홍익대, 8강에서 조선대, 지난해 우승팀인 연세대를 준결승전에서 차례로 꺾고 최종 우승했다. 대학동문전은 각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릴레이 방식으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외대 KUSA, 하계 중국 봉사활동 실시

한국외대 봉사동아리 KUSA(한국유네스코 학생회)가 7월 22일(화)부터 30일(수)까지 중국 심양 조선족 제1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봉사활동은 조선족의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국어 교육활동과 문화 교류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대학 재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조선족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연극, 편지쓰기 등 한국어 교육활동과 한국 가요, 난타, 한국 문화 퀴즈 등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KUSA(한국유네스코 학생회)는 지난 1965년에 결성되어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류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는 유네스코의 정신 아래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봉사단체다.

2014년 주요 기업체 인사관계자 초청 간담회

경력개발센터는 '2014년 주요기업체 인사관계자 초청간담회'를 8월 25일(월)에 개최했다. 조우종(미디어커뮤니케이션 95)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5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한국외대 학생들이 선호하고 주로 진출하는 주요 기업체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초청하여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채용과 취업지도 및 대학 커리큘럼에 적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대 졸업생들의 강점과 약점, 기업체에서 이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참석자들에게 사전 설문조사하여 외대 졸업생들의 SWOT분석을 통해 기업체 인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고교생 물리축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

2014년 고교생 물리축제가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에서 7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펼쳐졌다. 우리대학과 한국물리학회, 고등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우수한 고교생 29팀이 참여했다. 축제는 물리·과학을 토대로 한 강연 발표와 명사 강연, 물리 골든벨 행사로 구성됐다. 폐회식에는 이철희 한국물리학회장, 금종혜 고등과학원장과 이보화 한국외대부총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수상 학생들은 2014년도 후반기에 소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물리홍보대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연 발표 체험으로 고교생에게는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 지역의 중학생들에게는 물리 대중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연구센터, 대만국립중흥대학과 제4회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대만연구센터는 6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제4회 공동국제학술대회(第四屆聯合國際學術會議)'를 개최했다. 대만연구센터(소장 강준영)가 '미래를 향하여: 한국과 대만의 인문사회과학의 대화'를 주제로, 대만 국립중흥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40여 명의 국내외 대만 전문가가 참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논쟁과 지역사회 이슈, 한–대만 간 문화교류 등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에서의 대만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전망 등을 논의했다. 대만연구센터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학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지역연구센터, 특별학술회의 개최

국제지역연구센터(센터장 정경원 스페인어과 교수)는 7월 4일(금),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도 국제지역연구센터 특별학술회의'를 시행했다. 이번에 개최된 특별학술대회에서는 '백두산 화산 재해와 국제지역연구'라는 대 주제로 열띤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9편의 논문과 9편의 포스터 논문 등 총 18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의 축하 연설이 있었다.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주말 프로그램 신설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에서 주관하는 Global Business MBA과정이 9월에 개강했다. 이 과정은 경영학적 지식과 전 세계의 핵심 성장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는 경영학의 세부 핵심 과목에 집중하여 경영학에 대한 핵심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또한, 중국, EU, 아세안, 중남미, 중독, 러시아·CIS 등 전 세계 핵심 성장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해 글로벌경영전문가를 육성하는 특별 교육과정이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 노어과 교수) HK연구사업단은 6월 3일(화),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문한국 프로젝트(아젠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러시아 일상공간의 긴장과 갈등'을 주제로 기획됐다. 총 6명이 두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한 학술대회는 러시아 지역연구 연구 대상의 지평을 확대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러시아연구소 구성원의 자체 연구력을 강화하고 학문 연구자들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뉴욕 9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

뉴욕 9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이 8월 8일(금), Reception House, Flushing에서 개최됐다. 미국 최대, 최고의 경영자과정으로 자리매김한 글로벌 CEO과정은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뉴욕 9기는 7월 14일(월)부터 시작하여 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뉴욕에서만 350여 명이 수료했다.

• 뉴욕 9기 수상자 : 변크리스(최우수), 이광수(우수), 한고광(우수), 홍성표(공로)

인도네시아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

인도네시아 1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이 8월 29일(금), 코린도 회사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과정은 7월 10일(목)부터 8월 29일(금)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는 인사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회계학, 생산관리, 인도네시아 문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인철 총장과 권석균 경영대학원 원장, 김유경 국제교류처장, 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학과장 및 조태영 한국 주인도네시아대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 인도네시아 1기 수상자 : 신만기(최우수), 이강현, 전민식(우수), 공자영, 김상기, 김영율(공로)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제20회 국내초청 세미나 개최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센터장 정경원 교수)는 신본관(109호)에서 7월 16일(수), 국내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김두환 본부장을 초청하여 '한–중남미 환경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두환 본부장은 한국 환경정책의 역사를 설명하며 "1980년대 환경을 고려하지 못 했던 산업 발전과 1991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의지, 투자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1994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었다"고 설명했다.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14 서울기호학 여름학교' 성료

인문한국(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단장 전기순 스페인어과 교수)는 8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2014 서울기호학 여름학교(Seoul Semiotics Summer School)'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여름학교는 한국외대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한국기호학회, 고려대학교 응용문화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내러티브와 세미오시스(Narrative & Semiosis)'라는 주제로 밀도 있는 강좌를 진행했다.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제6차 동아시아슬라브학회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 노어과 교수) HK연구사업단은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6월 27(금) ~ 28일(토)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한국슬라브학회 및 동아시아슬라브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학회는 'Peace Building in East Asia & the Expansion of Eurasian Cooperation: Dynamics and Tasks'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학회는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의 환영사와 장덕준 한국슬라브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미하일로바 예브겐야 러시아 사하(야쿠트)공화국 동북연방대학교 총장과 김현택 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학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총 85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29개 세션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개교 60주년 기념 '외대미전' 개최

'개교 60주년 기념 외대미전'이 '프러시안 블루' 주관으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지하 특별전시장(10월 13일부터 23일까지)과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1층 전시장(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에서 진행되는 '외대 미전'은 미술반 졸업생들의 작품 50 여점이 전시되어 외대구성원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그림촌(서울캠퍼스 미술반 동아리)'과 '하얀공간(글로벌캠퍼스 미술반 동아리)' 출신의 미술반 졸업생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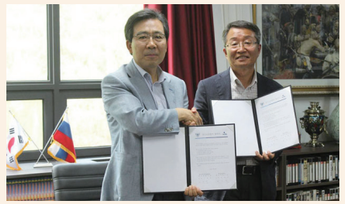
공군과 '조종 어학장학생 선발' 교류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공군과 '조종 어학장학생 선발'에 관한 교류 협정을 7월 11일(금),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년 9월 10일(화)에 체결한 '공군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과 재외무관 파견요원 사전교육을 위한 MOU'건과 관련하여 '조종 어학장학생(연간 5 ~ 10명) 선발'의 내용을 추가하는 교류 협정 체결이다. 협약식에는 공군측 이건완 인사참모부장(소장)을 비롯하여 신옥철 교육정책과장, 김규영 교육정책담당 등이 방문하여 우리대학 김인철 총장을 예방한 후 이덕선회의실(대학본부 203호)에서 이성하 대외부총장 주재하에 협정서 개정안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세계 일류'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외대와 공군이 본 협약을 통해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교육협력협약 체결

글로벌캠퍼스(부총장 이보화)와 경기도교육연수원(원장 이현숙)은 7월 2일(수) 오후 2시, 경기도교육연수원 온누리관 2층 아람홀에서 교육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제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이번 경기도교육연수원과의 교육협력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연수 프로그램 등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간 전문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연구소, 한림대 러시아연구소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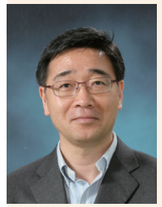
러시아연구소(소장 김현택 교수)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소장 최태강 교수)와 학술교류 및 인적·물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7월 16일(수),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첫째, 상호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둘째, 국제학술회의,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셋째, 출판물과 연구자료를 공유하며, 넷째, 학술행사에 두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다섯째, 인적자원 교류와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림대 러시아연구소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기관으로서 '러시아 인문 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러시아연구소 HK 사업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콜롬비아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와 7월 18일(금),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정에 따라 양 교는 학생 교류를 포함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김인철 총장이 콜롬비아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후안 떼헤이로 총장(Juan Manuel Tejeiro)을 만나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국제교류·대외협력처 김유경 처장과 윤경욱 팀장이 배석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은 1867년에 설립되어 4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콜롬비아 최초, 최대의 국립대학이다.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와 MOU 체결

우리대학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와 6월 19일(목),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MOU를 체결했다.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GCC-KOLAC)의 정경원 센터장은 멕시코 케레따로주(Estado de Querétaro)에 있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ITESM))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이 대학의 총장 Salvador Coutiño Audiffred와 만나 협약을 맺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구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기후변화 대응/적응,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미래 학술교류와 지식공유, 인적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궁영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연이어 개최

남궁영(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 6월 13일(금), 프레스센터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국내 여러 전문 학자들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했다. 또한, 8월 22일(금) ~ 23일(토)에는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재해석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서 8월 28일(목)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봉철 교수, '2014 한국-사하 대학생 포럼' 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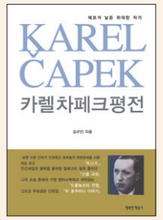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가 지도교수로 진두지휘한 '2014 한국-사하 대학생 포럼'이 6월 27일(금)부터 7월 11일(금)까지, 사하공화국 소재의 북동연방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4 한국-사하 대학생 포럼은 사하공화국과 한국 간 교류 증대를 위해 연구와 문화 봉사활동을 매개로 사하공화국에 대한 포럼 참가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펼쳐졌다. 올해는 '소통에 바탕을 둔, 동등한 수준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초를 만들자'는 기조 아래, 한국 학생 12명이 북동연방대학교 학생들과 5개의 팀을 이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약 15일간 진행됐다.

이숙자 명예교수 개인전 개최

이숙자 화학과 명예교수가 9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 메르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평소 그림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이숙자 명예교수는 정년퇴임 이후 화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이번에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이숙자 명예교수는 다양한 수채화 작품들을 선보였다. '마테호른'을 비롯해 '스위스 카펠교' '할슈타트' '듀셀도르프 등 외국 명소를 배경으로 한 풍경화부터 '도담삼봉' '두물머리' 등 국내 명소를 다룬 풍경화, 그리고 '식탁' '복숭아' 등 정물화, '자화상' 등 인물화 작품들도 전시됐다.

최완진 교수, 『신법학통론』 출판

최완진 교수는 『신법학통론』(세창출판사)을 출판했다. 신법학통론 제1편 총론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게 될 학생을 위해 법의 본질과 목적, 생성과 계통, 연원, 체계, 효력, 적용과 해석, 법학의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했고, 제2편 각론에서는 교양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사회법, 소송법, 국제법 등 실정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서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민법과 상법의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고, 내용 설명에 이어 case method 교육방식에 맞도록 사례문제를 삽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김규진 교수, 『카렐 차페크 평전』 출판

김규진 교수는 『카렐 차페크 평전』(행복한 책읽기)을 출판했다. 체코가 낳은 위대한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Čapek, 1890-1938)의 문학과 인생을 분석한 『카렐 차페크 평전』은 그의 주옥같은 희곡 6편과 산문 5편을 분석한 본격적인 카렐 차페크 연구서다.

최정화 교수와 함께 떠나는 7일간의 프랑스어 회화 여행
최정화/ 2014/ 신국판/ 160면/ 12,000원

상황별로 유용한 프랑스어 표현들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프랑스어를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배우며 회화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했다.

정념 기호학_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홍정표/ 2014/ 328면/ 신국판/ 20,000원

정념 기호학은 인간의 정신세계인 정념에 모종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정념 세계에도 일정의 논리적 구조가 있으며, 이 구조가 테스트 내에서 반복되고 재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념 구조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타밀어입문
양기문/ 2014/ 264면/ 신국판/ 15,000원

타밀어 입문서인 이 책은 타밀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한국어와 타밀어 간의 상관성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몽골어2
어드겅체첵/ 2014/ 240면/ 크라운판/ 18,000원

대학교에서 몽골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초급 교과서다. 총 15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별 대화, 새 단어, 문법, 읽기, 연습문제로 구성되어있다. 각 과에서는 몽골인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 예시를 통해 문법과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문체론용어사전
김희영 외/ 2014/ 904면/ 신국판/ 45,000원

문체론 용어사전 분야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시학·수사학 사전』(모리에, 1961)과 『문체론 용어사전』(마잘레라 & 몰리니에, 1989), 『문체론 사전』(웨일즈, 1990) 등의 1차 문헌과 1990년 이후에 저술된 2차 문헌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진이 집필했다.

2014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김현택 외/ 2014/ 크라운판/ 320면/ 15,000원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나온 책이다. 러시아에 대한 사회 일반의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러시아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 여러 분야에서 전개 중인 한·러 양국 관계의 평가와 전망, 러시아 문화 예술에 대한 현대적 조명 등을 담았다.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길잡이1,2(개정판)
송정남/ 2014/ 224면/ 46배판/ 20,000원

2010년에 출간된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길잡이』의 문제점들과 아쉬움, 그리고 독자들의 유익한 지적들을 받아들여 개정판을 출판했다.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회화1,2(개정판)
송정남 외/ 2014/ 176면/ 46배판/ 18,000원

2005년에 출간된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회화』의 문제점과 아쉬움, 그리고 독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정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국내의 모든 한국인을 위해 기획됐으며,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두 4권이 출판될 예정이다.

텍스트종류언어학
크리스티나 간젤/ 조국현 옮김/ 2014/ 200면/ 신국판/ 18,000원

텍스트종류언어학의 특성으로 체계와 환경의 분리,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과 행위'의 분리, 텍스트종류의 분석 및 기술과 의미 차원, 상황성과 사회적 차원 – 사회적 체계와 텍스트 종류, 텍스트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 분리, 기능적 문체, 자기 지시와 타자 지시의 전략에 의한 설득, 텍스트 종류와 진화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기초 이탈리아어 스피치
이상엽/ 2014/ 240면/ 크라운판/ 17,000원

20년이 넘는 이탈리아 유학 경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판했다. 이탈리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부터 유학 준비생, 직장인까지 이탈리아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탈리아어의 문법과 어휘는 물론 강세와 리듬, 억양 등 회화를 터득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정경원 외 / 2014 / 전자책(epub) / 12,000원

라틴아메리카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과학적 잠재성과 기후변화의 현실 및 대응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더 이상 기후변화의 변방이 아니며, 아마존을 포함한 열대 우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초대 부총장 조장연 교수 취임
2004년 개교 이래 2014년 7월까지 학장 체제로 운영되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부총장 직책이 신설됐다. 초대 부총장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의 조장연 교수가 8월 1일(금)부로 취임했다. 조장연 초대 부총장은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 상경대학장, 한국외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S-Oil, 유나이티드제약 등 다수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스페인어학부, 제1차 스페인 문화탐방 실시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는 6월 28일(토)부터 7월 5일(토)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톨레도 등 스페인 각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7박 8일간의 단기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스페인어학부 김수진 교수의 인솔 하에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탐방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8월 23일(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조장연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사이버외대가 명문 사이버대학 중 하나인 'one of best'이지만, 4년 뒤에는 'the best'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함께 자리해준 가족들에게 점심 뷔페와 캠퍼스 투어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학년도 후기 졸업생 학위수여식 개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3일(토) 오전 11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357명의 학사학위자와 21명의 테솔 전공 석사학위자를 배출했다. 김인철 총장은 졸업생에게는 학위 취득을 축하했고, 그들 가족에게는 졸업생들이 학위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특히, TESOL 대학원이 2012년 3월 개원한 이래 최초로 석사학위자를 배출해 그 의미와 감동이 남다른 행사였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민간자격 등록 완료
교육부의 「자격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민간자격증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사이버한국외대는 TESOL대학원의 'TESOL자격증', 영어학부의 'CUFS영어번역사자격증', 중국어학부의 'CUFS중국어번역사자격증', 일본어학부의 'CUFS일본어번역사자격증', 미디어학부의 'CUFSPR전문가자격증' 등 5개 자격증의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다.

일본어학부, 이색 학습지원! 외국인교수와 '1대 1 전화 일본어' 회화 제공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측정 및 일본어 회화실력 함양을 위해 타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1대 1 전화 일본어' 회화를 이색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어학부는 2013학년도에 도입한 '1대 1 전화 일본어' 회화의 높은 인기에 일본어학부 재학생뿐만 아니라 사이버한국외대 타 학부 소속 재학생까지 참여대상의 폭을 확대한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김희진 주임교수,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영어교육 온라인 콘텐츠 프로젝트 선정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Universiade Gwangju 2015) 자원봉사자를 위한 영어교육 온라인 콘텐츠 프로젝트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의 김희진 주임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위촉됐다. 공동연구원으로는 동 대학원의 Christopher Plumb 교수와 Paul Kajander 교수가, 콘텐츠 평가위원으로는 동 대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 약 20여 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라크 국립대학 교수진의 우리 대학 방문
이라크 국립대학 교수진이 우리 대학 콘텐츠의 기술적인 수준과 온라인 교육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6월 30일(월), 사이버한국외대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오바마 홀, 기념관, 스튜디오 등 학교 시설을 방문한 후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절차 안내 및 온라인 강의 촬영 참관 등의 방문일정을 소화했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4학년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부별로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는 각각 괌, 중국 남경, 일본 벳푸에서 해외단기어학연수를 실시했고, 한국어학부는 태국에서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을 실시했다.

외국어연수평가원 개·증축 공사

외국어연수평가원(FLTTC / 이하 연수원)이 전면 보수 공사를 마치고 9월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공사에서는 1층 현관을 확장하고 2 ~ 4층의 교실과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면서 5층의 기숙시설을 모두 최신 강의실로 개조하는 등의 공사를 마쳤다. 연수원에는 평생교육원, FLEX, 그리고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자리잡았다.

외국어연수평가원 정규과정 개강

외국어연수평가원의 하반기 정규과정이 8월 4일(월), 개강했다. 개설 강좌는 20주 정규 주·야간 과정과 10주 야간과정 등으로 실용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는 9월 1일(월), 장기유학시험 대비반은 9월 13일(토)에 개강했다.

기업체 특수외국어 위탁교육

외국어연수평가원은 하반기 한국관광공사 중국어 집중과정을 개강했다. 이와 더불어 롯데글로벌스쿨 베트남어 및 인도네시아어, LG CNS 영어 위탁교육 과정 등의 기업체 해외파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FLEX 2, 3회차 정기시험 시행

2014년 FLEX 2회차(6/1), 3회차(7/27) 정기시험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평택, 용인, 제주에서 동시에 시행했다.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우리대학이 수년간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이다.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http://flex.hufs.ac.kr, 02-2173-2532 / 2529~30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시상식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시상식이 8월 20일(수),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시대회 수상자는 총 1,374명이며, 시상식에는 이들 중 대상, 금상, 은상을 수상한 200명을 초청했다.

비정기 수시 위탁시험 소개

비정기 수시 위탁시험은 FLEX센터에서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비정기)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평가(개인 신청 불가) 시험이다. 이 시험은 각종 외국어능력 측정 전담부처, 정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그룹사, 일반 기업체 등에서 채용, 인사고과, 승진, 파견, 어학능력평가 등의 자료로 다양하게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통번역기초과정 개설

평생교육원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고급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번역기초과정'을 개설했다. '통번역기초과정'은 외국어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배우려는 기업인과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5개월 과정을 마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기수	기간	강의 요일	강의 시간
1기	2014. 06. 28 ~ 11. 08	토	10:00 ~ 17:00
2기	2015. 01. 05 ~ 05. 23	월, 수 / 화, 목	19:00 ~ 22:00
		토	10:00 ~ 17:00

TOMER 터키문화교육원 2014년 하반기 개강

터키문화교육원에서 터키어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터키 앙카라대학교 TOMER 본부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수의 강도 높은 회화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터키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까지 배울 수 있다.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연수원 교육일정

과정명	기간	요일/강의시간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2014. 09. 01 ~ 12. 19	수 or 목 18:30 ~ 21:20
장기유학시험대비반	2014. 09. 13 ~ 12. 27	토 09:00 ~ 16:00
10주 야간 회화과정	2014. 10. 13 ~ 12. 19	월, 화, 목, 금 19:40 ~ 21:30
	2015. 02. 02 ~ 04. 06	
겨울방학특별과정	2015. 01. 13 ~ 01. 29	월~금 09:30 ~ 16:30
20주 정규 주간과정(77기)	2015. 02. 02 ~ 06. 15	월~금 09:30 ~ 16:30 18:40 ~ 21:30
20주 정규 야간과정(81기)		

가을학기 한국어정규과정 개설

2014 가을학기 한국어정규과정이 9월 15일(월) 시작되었다. 이번 과정은 연 4회, 10주 일정으로 구성되며, 이번 과정을 개설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간 2,500여 명의 외국인을 교육하는 국내 정상급 한국어교육기관이다.

재외동포재단, 중국지역 및 러시아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올해 7월 재외동포재단과 협약을 맺고, 중국지역의 조선어 교사 67명과 러시아CIS지역 한국어 교사 40명을 초청하여 연수사업을 시행했다.

삼성 외국인 직원, 한국어 집중과정

한국어 집중과정이 5월 19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진행됐다. 삼성 계열사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코이카 한국어교사 양성 및 능력배양 과정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코이카에서 위탁을 받아 7월 3일(목)부터 9월 20일(토)까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페루의 한국어 교사를 초청하여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2014학년도 TESOL 전문교육원 전기(23기) 수료식 및 후기(24기) 입학식

2014학년도 전기(23기) 수료식과 후기(24기) 입학식이 각각 8월 22일(금)과 23일(토)에 개최됐다. 이번 전기 수료식을 통해 배출된 TESOL 과정 수료 및 이수자들은 추후 다양한 영어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영어교육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 1회 영어수업경연대회 개최

'제 1회 영어수업경연대회'가 7월 12일(토), 대학원 BRICs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4학년도 전기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반별 대항전으로 진행됐으며 총 6팀 중 주말반(F)이 대상을 차지했다.

TESOL for Moms & Dads 신규과정 2기 개강

엄마표 및 아빠표 영어교육자 양성 과정인 TESOL for Moms & Dads 2기 과정이 주중반 수업을 시작으로 8월 21일(목), 개강했다. 수강생들은 본 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받고, 일반이나 어린이 TESOL과정으로 진학 시 입학 가산점과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버나디노 캠퍼스로 자녀 동반 인턴십의 기회도 주어진다.

해외 대학 인턴십 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대학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에서는 기존 4개 대학교(미주리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하와이대학교,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와 더불어 작년부터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2개 대학교(뉴욕주립대학교, 캐나다 셀커크대학교)가 추가되어 총 6개 대학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2014년 베트남어 집중과정

국제사회교육원(원장 김철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어집중과정'을 6월 11일(수)부터 8월 19일(화)까지 진행했다. 해외 파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이번 과정에서는 총 17명이 2개 반으로 나뉘어 베트남어를 집중 교육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지역전문가과정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그룹 2014년 지역전문가 과정'이 6월 16일(월)부터 8월 26일(화)까지 진행됐다. 총 7개 어종, 3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국제사회교육원에서 9주간 사전 합숙 어학 교육 및 파견 국가에 대한 이문화 교육을 이수한 후, 해외 현지 국가에서 약 1년간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014년 SGCP-O Intensive Biz English과정

'2014년 SGCP-O Intensive Biz English'과정이 6월 30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 개최됐다. 본 과정은 코닝정밀소재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해외업무에 필요한 이메일 및 비즈니스 레터 쓰기, 발표능력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능력 등 고급 비즈니스 영어실력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2014년 한국전력 전략지역 전문가 사전 육성과정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사업 전략지역 전문가 사전육성 과정' 입소식이 8월 9일(토)에 개최됐다. 본 과정은 8월 9일(토)부터 11월 1일(토)까지 12주간 주말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국,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 아랍 총 5개 국가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집중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014년 신세계그룹 SMBA 영어집중과정

신세계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SMBA 영어집중과정'이 7월 28일(월)부터 8월 22일(금)까지 시행됐다. 본 과정은 총 4주간 합숙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영어를 활용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집중교육 목적으로 한다.

삼성그룹 2014년 하반기 주재원 전략어 집중과정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삼성인력개발원 주재원 파견 전 전략어 집중과정' 입소식이 9월 1일(월)에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해외 파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4주간 시행됐다. 베트남어, 스페인어 및 태국어 3개 언어를 교육했으며, 이번 과정의 참여 임직원은 과정 종료 후 삼성그룹의 평가를 거쳐 해당 국가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개최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동대문구와 단양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대문구청과 단양교육지청의 지원으로 시행한 이번 캠프는 캐나다 교사 출신의 강사진을 통해 생동감 있는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영재교육원, 1학기 산출물 발표

영재교육원은 7월 12일(토), 1학기 산출물 발표 행사를 진행했다. 정규과정 학생들은 학부모의 참관 속에서 1학기 수업을 바탕으로 준비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8월 10일(일)부터 13일(수)까지 글로벌캠퍼스에서 '2014년 여름 영재원 캠프'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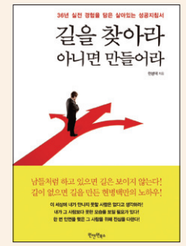
동문출간

노희직(독일어 78)

『Auf der Suche nach der schoenen koreanischen Kunst, Deutsche Literaturgesellschaft Verlag』

황인자(영어 74)

『황인자의 남다른 정치』(여성신문)



헌병택(국제통상 74)

『길을 찾아라 아니면 만들어라』(완맨원북스)

김남규(영어 75)

『감초동사 34 & 생생표현 2690』(대교출판)

박원길(영어 95)

『라울 선생님의 영문법교과서(상·하)』(에듀웹)

동문동정

손선홍 동문,
제13차 한독포럼' 참가

손선홍 외교부 본부대사(독일어 73)는 7월 9일(수)에서 11일(금)까지 이화여자대학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독포럼'에 참가했다. 손 대사는 분과 제1세션에서 '공공외교와 미디어'란 주제로 한 발제에서 '문화, 예술, 봉사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이용하여 외국의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공공외교'에 관해 강조했다.

뉴욕 & 뉴저지 동문회 – 소모임 댄스 동호회, 매주 화요일 스포츠 댄스 진행

뉴욕 & 뉴저지 동문회의 소모임 댄스 동호회(회장 권일준 독어교육 69, 성기복 불어과 71)는 매주 화요일 저녁 스포츠 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댄스 동호회는 7월 20일(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의 카리브해에서 친목을 도모했다.

외휘회
토요산행모임

매주 서울근교의 주요 둘레길을 탐방하는 '외휘회산행소모임'에서 8월 28일(목), 55차 산행을 가졌다. 외휘회산행소모임은 앞으로도 100차, 200차까지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공사

성명	인사내용	학적
최성우	한국관광공사산업협력실장	프랑스어77
양문수	한국관광공사여행정보서비스실장	스페인어78
나상훈	한국관광공사해외마케팅실 실장	영어80
신평섭	한국관광공사브랜드마케팅실장	독일어교육80
안덕수	한국관광공사CSR센터장	프랑스어82
이재상	한국관광공사교육운영팀장	독일어82
김태환	한국관광공사사랑채운영센터장	프랑스어83
이태혁	한국관광공사해외스마트관광팀장	프랑스어84
정진수	한국관광공사기획조정팀(안전여행팀) 팀장	일본어84
정순화	한국마사회말산업인력개발원 승마아카데미담당	영어86
안경찬	국민체육진흥공단영등포지점 지점장	아프리카어84
주정돈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관리실 실장	프랑스어85
최민호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 고객만족팀 팀장	독일어88
김태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	이란어81
이경철	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장	법학88
정지현	무역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조사 팀장	국제통상89
이승환	한국투자공사(KIC)사업개발팀장 겸 홍보실장 이승환	경제87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영어76
박인식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장	스칸디나비아어83

언론

성명	인사내용	학적
김광민	MBC드라마운영센터장 겸 드라마운영부장	독일어80
정용준	MBC보도국 부국장 겸 취재센터 문화레저부장	한불(석)88
변선구	중앙일보사중앙일보 뉴미디어 편집국 영상부장	마인어87
전진배	중앙일보사JTBC 사회2부장	불어과90
홍기삼	뉴스1뉴스1 사회부 차장	헝가리어90
이종락	서울신문편집국 산업부장	신문방송(박)07
임철재	서울신문사업단 BTL마케팅부장	언론홍보(석)10
정승욱	세계일보사회2부 부장	노어81
성정은	스포츠서울뉴미디어국 국장	영어교육86
김진욱	스포츠서울뉴미디어국 모바일 부장	신문방송92
이종재	이투데이대표이사 사장	독일어교육79
윤석훈	KBS라디오센터장	독일어75
우종택	KBSTV본부 기획제작국장 직무대리	신문방송80
천시영	㈜헤럴드논설실장	행정77
석종철	KBS보도본부 보도영상국 영상취재부장	네덜란드어81
이봉섭	KBS기술본부 시설관리부장	독일어84
이창룡	KBS보도본부 보도국 과학·재난부장	정치외교84
정지영	KBS글로벌한류센터 콘텐츠사업부장	법학86
강영조	스포츠서울 사진부장	신문방송89

정부기관

성명	인사내용	학적
윤중섭	경찰청충남아산서장	아랍어79
조기중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 과장	프랑스어89
최정석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리우데자이네루 무역관장	스페인어82
황재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시안 무역관장	중국어87
윤득영	법무부대검찰청 집행과장	행정85
조장연	법무부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행정72
김흥률	감사원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정치외교76
김부년	국회사무처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학(석)82
정재인	국회사무처기획재정부	영어84
조경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제2차장 (차관급)	경제80
권기대	감사원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4급)	법학94
박시석	감사원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감사관(4급)	경제81
정준희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직무대리	행정81

금융

성명	인사내용	학적
조정휘	우리투자증권본사 컴플라이언스부 부장	독일어85
김태석	한국은행경기본부장	국제통상80
노우철	한국씨티은행명일동지점 지점장	경제84
조혜연	한국씨티은행반포래미안 지점장	프랑스어교육85
이호영	한국수출입은행대선조선 경영관리단장 (부서장급)	프랑스어81
김용생	동부화재특종업무파트 파트장	정치외교85
방주혁	한화생명동부지역단장	독일어83
신상원	우리은행한국외국어대학교 지점장	영어83
이상국	우리은행투자금융부 부장대우	영어83
정공흠	우리은행상암동지점 지점장	컴퓨터공학86
박성호	기업은행본부 경영관리부 IR팀 팀장	영어83
박철	기업은행드림기업 대구3공단지점 지점장	불어90
오득환	기업은행독산공단지점 지점장	독일어82
채한식	기업은행여의도지점 지점장	정치외교83
홍창진	신용보증기금경기영업본부 경기창조금융센터장	프랑스학83
김정원	KDB산업은행해양산업금융부 부지점장	경제82
정병화	한국은행경기본부	경영80
강신원	외환은행김포지점 SAM	경영84
박노술	외환은행본점 IT본부 수석IT역	노어85
변상문	외환은행본점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경영87
변승현	외환은행이태원남지점 지점장	중국어83
이동만	외환은행을지로지점 지점장	포르투갈어83
이희락	외환은행중곡동지점 지점장	스페인어89
정우영	외환은행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영어81
조남욱	외환은행선릉역지점 SAM	국제통상85
곽경탁	KDB산업은행진주지점 팀장	경제84
김형운	KDB산업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경제85
박철홍	KDB산업은행안전관리실 실장	법학87
정옥태	KDB산업은행리스크 관리부 팀장	경제85
신동현	하나은행성남지점 지점장 겸 RM(기업금융전담역)	태국어통번역83
이보윤	하나은행자금결제실 실장	스페인어통번역82
전상훈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 서비스본부장	국제통상81

기타

성명	인사내용	학적
권용승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경영지원실 기획예산팀 팀장	행정87
이희옥	성균관대학교중국대학원장	국제관계(박)89
이종배	기술보증기금비서실장	경제83
안종태	기술보증기금가산지점장	아프리카어83
정흥모	경남정보대학교호텔관광경영계열학과장	포르투갈어77
이서빈	미스코리아 선	태국어12
임영종	한양대학교기획처 처장	노어82
홍유석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법인GSK한국법인 사장	포르투갈어83
고준성	산업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장	독일어78
윤성욱	동아대학교경영대학장	경제79
조사옥	인천대학교대학출판부장	일본어76
유의동	2014.07.30 재·보궐선거평택을 국회의원 당선자	태국어90
남기완	한밭대학교도서관장	중국어82
강태진	대구가톨릭대학교중남미 중심 신흥지역 맞춤형 글로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스페인어75
김효신	대구가톨릭대학교한국어교육전공주임	이탈리아79
윤도현	꽃동네대학교 교학처장	독일어77
이희수	한양대학교박물관장	터키어75

Donation

HUFS 발전기금 뉴스 | HUFS NEWS

스탠다드펌 장학금 및 발전기금 약정식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이덕선회의실에서 7월 2일(수) 오전 11시, 스탠다드그룹(김상백 회장, 대학원 국제금융학과) 장학금 및 발전기금 약정식이 열렸다. 스탠다드그룹은 비철금속 원자재 무역, 알루미늄 용해 및 주조공정, 언론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공장을 추가 설립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대학보동우회 장학금 기탁식

외대학보동우회(회장 정길화, 스페인어 78) 장학금 약정식이 6월 23일(월) 오후 3시,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인철 총장, 김유경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처장, 이유나 홍보실장이 참석했으며, 동우회 측에서는 정길화 동문이 함께했다. 외대학보동우회는 지난 2006년 약정에 이어 이번에도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약정했으며, 모금된 장학금은 신문사 기자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 ICT 발전 장학금 전달식 개최

SK텔레콤 창사 30주년 기념 '대학생 ICT 비전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상금과 ICT 발전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에서 7월 30일(수), 개최됐다. 1억 원의 장학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와 독일어교육과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부 동문, 외무고시반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식

외교부 동문회 외무고시반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식이 7월 25일(금),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 동문회를 대표하여 최종현 외교부 의전장(정치외교 76), 여운기 외교부 아중동국 심의관(독일어 85), 장명수 중남미국장(스페인어 80), 이진문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외무사무관(프랑스어 99), 강수경 외교부 유라시아과 외무사무관(영어통번역 05)이 참석했다.

김형진 글로벌 CEO과정 초대 동문회장,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김형진(세종텔레콤 회장) 동문이 글로벌 CEO과정의 초대 동문회장으로 추대됐다. 김 동문회장은 뜻깊은 날을 맞아 1억 원의 글로벌 CEO과정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글로벌 CEO과정은 1997년 3월 세계경영대학원에서 GBLP(Global Business Leaders' Program)라는 명칭으로 개설됐으며, 이후 Global AMP와 글로벌 CEO과정으로 개칭됐다.

샌프란시스코 4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 및 발전기금 10만불 약정

샌프란시스코 4기 글로벌 CEO과정 수료식이 8월 15일(금), Crowne Plaza Hotel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료식에는 김인철 총장과 권석균 경영대학원 원장이 참여하여 글로벌 CEO과정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강승구 샌프란시스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교와 경영대학원을 위해 발전기금 10만 달러를 약정·기탁했다.

지금, 우리 학과 장학금 나무를 확인하세요!

http://mscholarship.hufs.ac.kr

미네르바·명수당 장학금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학창시절의 낭만이 가득했던 교정에
우리 학과 장학금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장학금이 늘어갈수록
우리 학과 나무에도 싱그러운 나뭇잎과 꽃이 늘어갑니다

100년을 향한 외대의 영광을 이어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뭇잎을 보내주세요

장학금캠페인의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학과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 TEL 02-2173-2756 E-mail hufs5@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nation List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 HUFS NEWS | 2014. 06. 11 ~ 2014. 08. 25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권정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김군선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81 동문	5,000,000
김성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5 동문	3,000,000
김승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동문	1,000,000
김영재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96 동문	200,000
김용주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0 동문	100,000
김준명	서양어대학 노어과 93 동문	120,000
김철균	상경대학 경제학과 01 동문	300,000
박경은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98 동문	2,400,000
박승명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서범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서승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88 동문	120,000
신지안	석사 중어중문과 04 동문	100,000,000
유영미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2 동문	1,440,000
윤영진	영어대학 영어과 69 동문	2,000,000
윤인철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8 동문	3,000,000
이경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0 동문	3,000,000
이재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02 동문	480,000
이창순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64 동문	100,000
이하나	영어대학 통번역학전공 02 동문	480,000
이해영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동문	3,000,000
장선이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02 동문	2,400,000
정언용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1 동문	480,000
정유미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5 동문	3,000,000
최정화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20,000
최희순	석사 환경학과 10 동문	3,000,000
한백견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3 동문	480,000
한종국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1 동문	120,000
홍정숙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1 동문	5,000
김민정	외대교수	960,000
김희영	외대교수	10,000,000
신주철	외대교수	20,000,000
이지은	외대교수	1,920,000
최요섭	외대교수	1,440,000
최종찬	외대교수	2,400,000
강미리	외대직원	480,000
김범석	외대직원	480,000
김병혁	외대직원	480,000
박식원	외대직원	1,440,000
우주혜	외대직원	480,000
마인어과 동문회	동문단체	7,800,000
외교통상부 동문회	동문단체	3,000,000
외대학보동문회	동문단체	20,000,000
한국외대119학군단50기동기회	동문단체	2,1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김정국	기타(개인)	3,000,000
익명	기타(개인)	5,100,000
익명	기타(개인)	22,000,000
(주)동아이지에듀	기타(기업)	3,050,860
(주)비지에프리테일(CU)	기타(기업)	35,000,000
(주)우진고분자	기타(기업)	3,363,000
SK텔레콤(주)	기타(기업)	100,000,000
경문사	기타(기업)	1,700,000
대우증권(주)	기타(기업)	120,000,000
이마트	기타(기업)	3,629
카페네스카페	기타(기업)	15,000,000
케임브리지(주)	기타(기업)	1,800,000
키다리영어사	기타(기업)	2,000,000
(재)덕영재단	기타(단체)	124,000
(재)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기타(단체)	13,452,000
(재)흥한재단	기타(단체)	9,000,000
(주)세종	기타(단체)	100,0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27,000,000
KT 문화재단	기타(단체)	4,221,000
KT&G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회	기타(단체)	500,000
과천애향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글로벌캠퍼스 세탁실	기타(단체)	1,000,0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17,500,000
돈암장학회	기타(단체)	4,000,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58,616,000
미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3,374,000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타(단체)	48,349,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84,612,500
삼송장학회	기타(단체)	5,6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8,000,000
성옥문화재단	기타(단체)	7,584,000
스탠다드펌	기타(단체)	100,000,000
승희장학문화재단	기타(단체)	3,363,000
앨트웰민초장학재단	기타(단체)	6,726,000
원아시아클럽서울	기타(단체)	1,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15,480,000
정산장학재단	기타(단체)	2,5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24,894,000
포스코청암재단	기타(단체)	29,508,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1,8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4,374,000
현마육영재단	기타(단체)	23,541,000
형남진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서 깊은 맛과 향을 간직한 와인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일구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의 역사와 영광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외대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tag's Leap Hands of Time 2011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51%, 메를로 46%, 시라 3%
생산지역 Stag's Leap District, Napa Valley, USA(스택스 립 디스트릭트, 나파밸리, 미국)
특 징 베리류의 과일향과 벨벳 같은 질감, 은은한 허브와 다크 초컬릿의 여운은 스택스 립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와인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스택스 립은 1976년 국제와인품평회에서 프랑스 특급와인을 모두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와이너리입니다.

Le Charme de Marjosse 2009

포도품종 메를로 76%, 까베르네 소비뇽 18%, 까베르네 프랑 6%
생산지역 Bordeaux, France(보르도, 프랑스)
특 징 미국의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보르도 와인'에서 추천했으며, 샤또 슈발블랑 디렉터, 샤또 디켐의 CEO가 양조한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보르도 와인의 특징인 구조감이 뛰어나며 탄닌과 산도가 잘 조화된 가성비가 좋은 와인입니다.

Kaiken Terroir Series Malbec 2011

포도품종 말벡 80%, 보나르다 12%, 쁘띠베르도 8%
생산지역 Mendoza, Argentina(멘도사, 아르헨티나)
특 징 말벡이 가지고 있는 묵직함에 보나르다의 밝고 섬세한 터치를 가미하였으며, 쁘띠베르도의 신선한 아로마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붉은 과일, 특히 딸기 향이 지배적이며 말벡의 깊은 맛이 더해져서 견고하지만 우아한 와인의 맛이 느껴집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수익금은 한국외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구 입 방 법 ❶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홈페이지 접속 (http://builder.hufs.ac.kr/user/hufsfund/) ❷ 자주 찾는 서비스의 개교기념와인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❸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에서 신청서를 판매회사로 전달 ❹ 판매회사에서 신청자에게 결제 및 배송관련 안내 연락

구 입 문 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TEL : 02-2173-2791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부금 약정(기부)서

기부인 인적사항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 택				
		직 장				
		우편물수령지	☐자택		☐직장	
	근 무 처				부서/직위	
	전화	자 택			휴 대 폰	
		직 장			E-mail	
	구분	☐동 문	학부		입학 년도	년
			대학원		입학 년도	년
			최고경영자과정		입학 년도	년
		☐비동문				
약정(기부) 총액			☐현금 원		☐현물 원	
기부 지정분야			☐학교발전기금 ☐미네르바/명수당 장학기금 ☐경영관건립기금 ☐동문회관건립기금 ☐글로벌인재양성기금 ☐후배사랑장학금 ☐등록금한번더내기 ☐이름남기기 ☐학과발전기금 : 대학 과 ☐장학기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 ☐지정기부금 :			
납부 기간 · 방법	일 시 납		☐1회 완납 (금 원) 년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 할 (자동이체)		☐월납부액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15일 ☐말일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학과)의 공익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우편)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fund.hufs.ac.kr)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기탁자 예우 안내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기념품제공	O	O	O	O	O	O	O
학교발간 홍보물 제공	O	O	O	O	O	O	O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O	O	O	O	O	O	O
평생 무료주차권 제공		O	O	O	O	O	O
외국어연수평가원 수강료 할인		O	O	O	O	O	O
기금네이밍(아호 등 지정)			O	O	O	O	O
감사패 증정			O	O	O	O	O
대천수련원 이용시 할인				O	O	O	O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O	O	O	O
홀 명칭 명명, 동판 부착					O	O	O
흉상 부조 부착							O

문의처 | Tel.02-2173-2786~2791 | Fax.02-2173-2785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Email hufsfund@hufs.ac.kr

우리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으로서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홍보하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9.2~2016.9.1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1 3 0 – 7 9 1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oto Essay

〈글로벌캠퍼스의 가을 풍경〉

가끔은
풍경에 물들어도 좋다

매일 매일
조급하게 달음질하던 마음도
서투르고 뜨거웠던
청춘의 올망졸망한 시간도
풍경 앞에 아스라이 스며듭니다.

손을 높이 뻗으면
그 푸른빛에 물들 듯
깊고 맑아진 하늘만큼
청춘의 눈빛도 더욱
깊어져만 가는 계절입니다.

이유 없이 문뜩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하고
찰나가 될 풍경에 물들어도
좋을 날들입니다.